

한에협 기관지 2001-01  
통권165호

**La Lanterno Azia**  
**Oficiala Organo de**  
**Korea Esperanto-Asocio**

# 에스페란토

**jarkolekto 27 n-ro 165 (1)**

**januaro 2001**

그래도 희망은 아름답습니다. - 신년사

千人千色 - 회원들의 신년인사

**AL LINGVA DEMOKRATIO**



자멘호프탄신제 (**Zamenhofa TAGO**) (2000년 12월 16일, 협회사무실)



사단법인 **한국에스페란토협회**

La Lanterno Azia  
사단법인  
한국에스페란토협회

27a jaro n-ro 165 (1)  
januaro 2001

jara abonprezo: 11.5 eŭroj(aerpoŝte)

adreso:

Kangbyon Hanshin Core B/D 1601  
Mapo-dong 350, Mapo-gu,  
121-703, Seulo, Koreio  
telefono: +82-2-717-6974  
telefakso: +82-2-717-6975  
e-poŝto: keast@soback.kornet.net  
http://www.esperanto.or.kr/  
hitel: keast@hitel.net

Korea Esperanto-Asocio  
Landa Asocio de Universala  
Esperanto-Asocio ekde 1976  
UEA-kodo: keast-  
Fondita en 31 julio 1920  
Reorganizita en 31 aŭgusto 1975  
Prezidanto: d-ro LEE Chong-Yeong  
Ĝenerala sekretario: Sezamo KIM

편집위원장: 이영구  
편집부장: 김형근  
편집위원: 김점옥, 신동현, 방명현,  
박홍귀, 조명자, 김유영, 김용호

- 기사모집주소 -  
lanternoazia@hanmir.com

월간 발행  
1975년9월15일 창간

## 목차 ENHAVO

그래도 희망은 아름답습니다. {이종영} - 3  
千人千色 {회원} -- 4  
Kurĝon al la lernado de Esperanto {장정열} -- 5  
Al Lingva Demokratio (UEA) -- 6  
에스페란토 書堂 {5} - 7  
인터넷을 통한 회화공부 따라잡기 - 8  
'국제어 에스페란토 운동에 관한 프라하 선언' 해설 - 10  
Zamenhofa Tago en Seulo - 11  
아프리카는 지금? - 12  
La Silento de la Karulo - 13  
노신의 소설 감상 {2} - 광인일기 - 14  
2001년 전국 겨울합숙 안내 - 16  
제33차 한국에스페란토대회 안내 - 17

## 사단법인 한국에스페란토협회

1920년 7월 31일 조선 에스페란토 협회 창립  
1976년 세계 에스페란토 협회 국가 지부 가입  
1986년 12월 13일 사단법인 승인

고문: 안송산, 이종하, 정환근  
지도위원: 강봉길, 김보환, 김용현, 김종태, 김판술, 문용호,  
박강, 소중영, 이환의, 황보유안, 홍현락  
명예회장: 장중식, 최봉열, 한무협  
회장: 이종영  
부회장: 박화중, 양옥남, 이낙기, 이종세, 조성호  
이사: 김우선, 김유선, 마영태, 박강문, 서진수, 유광수,  
이영구, 임한우, 정원조, 나병도, 김유영  
비상임이사: 박종훈, 김수원, 김시현, 김정희, 김원식, 김주,  
김철, 노원소, 유한철, 이정언, 이종현, 이현희, 이윤보,  
전경덕, 조홍준, 조희숙, 최영달, 최홍두, 한덕섭  
감사: 강헌구, 김영명  
청년회장: 김유영  
UEA 이사: 이종영(B), 정원조(A)  
UEA 한국수석대표: 마영태  
사무국장: 김점옥

121-703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50 강변한신코아 빌딩1601호  
전화: (02) 717-6974 팩스: (02) 717-6975  
전자메일: keast@soback.kornet.net  
홈페이지: http://www.esperanto.or.kr/  
은행지로: 7622180 {한국에스페란토협회}  
국민은행: 031-01-0365-220 {한국에스페란토협회}  
신한은행: 623-05-000235 {한국에스페란토협회}

## 그래도 희망은 아름답습니다

- 2001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

이종영 한국에스페란토협회장 (lee@esperanto.net)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에스페란토협회 회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새 천년의 첫해인 지난해에는 한국에스페란토계에 나름대로 수확이 많았습니다. 1999년 정사섭 시인을 추모했던 “선구자의 날” 행사가 크게 성공적이었던 데에 힘입어서, 작년에는 평생 에스페란토를 위해 살다 가신 홍형의 교수님을 추모하는 “선구자의 날” 행사를 개최하여 외국인들까지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작년에 텔아비브에서 있었던 세계 에스페란토대회에서 한국인으로서 처음으로 조성호교수가 UEA의 권위 있는 “Grabowski 상”을 받았습니다. 이는 국제화에 진일보한 한국 에스페란토운동의 좌표를 확인시켜 줍니다. 홍콩에서 열렸던 세계 청년 에스페란토 대회에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단체로 대거 참가하여 많은 활약을 하였습니다. 부산 해운대 바닷가에서 개최된 제 32차 한국 에스페란토대회는 큰 대회가 아님에도 외국 에스페란티스토 30여명이 참가하여 질적, 재정적으로 성공적인 대회였습니다. 그 대회장에서 아세아에서는 처음으로 UEA/ILEI 국제어학검정시험을 한국인 시험관(서진수, 마영태, 이증가)의 관리하에 실시하여 2명의 합격자를 내었습니다. 회칙개정 에 의하여 조직된 대위원 대회가 작년에 처음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금년은 국가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해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운동은 전진해야 하겠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언어와 인권” 및 “언어적 민주주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제 공통보조어로서의 에스페란토의 역할을 유네스코와 유럽연맹이 논의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유엔에서는 5월에 국제공통어를 지지하는 비정부 기구의 모임이 개최됩니다.

21세기의 첫해인 새해에 희망이 비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에스페란토 홍보, 교육, 활용의 3대 방침을 계속 추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협회의 미래인 청년회도 새로운 진영이 짜였습니다. 청년들의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5월에

있을 선구자의 날에는 이재현 선생님을 기리고, 에스페란토운동에 공헌한 분에게 “우해 공로상”이 처음으로 수여 될 예정입니다.

명년 8월에 서울에서 개최될 제3차 아세아 에스페란토대회는 우리에게 주어진 즐거운 임무입니다. 우리가 1994년 세계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렀지만 아세아 대회에서 또한 성공을 거두려면 회원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봉사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남은 1년 반 동안 교육과 홍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희망(Espero)을 가진 사람(Esperantisto)들입니다.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희망을 높게 가지십시오. 희망은 아름답습니다.




Feliĉan kaj esperplenan novjaron! ☐


\* \* \*


La novan jaron, malgraŭ la malfacila ekonomio, multaj aferoj atendas nian atenton -- UN komencis diskuton pri lingva problemo kaj lingva demokratio, KEJ lanĉis novan estraron por pli aktiva agado. Kaj ni antaŭvidas la Azian Kongreson, okazontan en Koreio je aŭgusto de 2002. Ni estas Esperantistoj, homoj kun esperoj. Mi deziras, ke ĉiuj esperantistoj havu pli altan esperon -- ja belas *espero*. Feliĉan kaj esperplenan novjaron! ☐


# 千人千色


에스페란토 협회회원들의 새해 인사 모음


 "En la nova jaro 2001 ni gesamideanoj estu sanaj, prosperu en siaj laboroj kaj estu feliĉaj. Al ni la granda tasko estas tio ke la membroj de KEA plimultiĝu duoble ol tiuj de lasta jaro. Ĉiuj esperantistoj partoprenu al la sankta procesio propagandi Esperanton al neesperantistoj eĉ al siaj familianoj: patro, patrino, edzino, frato, aŭ avo, avino, filo, filino, kaj aliaj, tiel petas, samideane via,"  
LEE Nakkee (espernak@unitel.co.kr) □


 "새해에는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에스페란토 많이 써 주시고... 중국 에스페란티스토들과 사업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http://qilu.org/>) 그리고 올해에는 에스페란토와 함께 세계로 진출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Saluton 이성우 (saluton@eses.co.kr) □


 "에스페란토계에 더 자주 나타날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가 되었으면 하네요..." Milo 김현준 (milo@hitel.net) - 안그라픽스 출판사 마케팅팀. □

 "Multe da ĝoja tempo, prosperitaj tagoj dum tuta novjaro." 김양순 □


 "우리나라 남북의 평화가 세계의 평화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남북의 평화를 마음속으로 숙원합니다." 김보환 □

 "에스페란토 모든 회원들에게 새해에는 행복한 일만 많이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홍미숙 □


 에스페란토 사랑의 불씨가 영원하길... 에스페란토계에서 15년을 보냈습니다. 그 동안에 만났던 Kabeinto 여러분,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시나요? 에스페란토 사랑의 불씨, 설마 꺼지진 않았겠죠? 새로운 세기의 첫 해에, 에스페란토를 사랑하고 사랑했던 모든 분에게, 행운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김우선 (kimuson@unitel.co.kr) □


 Karaj legantoj: Mi elkore deziras al vi ĉiuj sanan kaj felĉan novjaron! Bedaŭrinde ankoraŭ ne malmultaj samideanoj kaŝas sian esperantistecon. Ni ne plu hontu pro la fakto, ke ni estas esperantistoj, sed anoncu al ĉiu dormanto, ke Esperanto estas la plej bona kaj unika kandidato


por vera internacia lingvo. Kun koraj salutoj, MA Young-tae (leono@esperanto-radio.net) □


 "에스페란토로 좋은 책들이 많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조성호 (shcho@inha.ac.kr) □

 Elkore mi deziras al vi ĉiuj esperantistoj feliĉan, sanan kaj prosperan jaron 2001. 강현구 (amas-esperanton@hanmail.net) □


 "올해는 원고 넘쳐서 고민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소서..." Knabo 방명현 (knabo@hanmail.net) □

 "좋은 소식만 가득가득 풍부히 넘치는 한해가 되게 해 주세요." Ĝoja 조명자 (dszedr@kosha.net) □


 "개인적으로는 아침 일찍 일어나는 착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에스페란토계에 새롭고 젊은 얼굴들이 지난 해 보다 더 많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김형근 (hiongun@mobigen.com) □

 "에스페란티스토는 녹색별을 깨고 나온다. 2001년, 많은 녹색별들이 깨지길 바라면서 우리 운동의 영광을 기다린다."

Sensŭo 박흥귀 (sensxuo@hanmail.net) □


 "에스페란티스토들의 사업이 잘 되어서, 올해에는 기관지에 광고가 넘쳐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Sezamo 김점옥 (sezamo@unitel.co.kr) □

 희망찬 새해의 아침입니다. 한국 에스페란토협회와 세계 에스페란토협회가 펼치는 언어를 통한 인류의 평화 운동이 한 마음이 되어 금년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수 있도록 다 함께 기원해 봅시다. 이영구(ykli@maincc.hufs.ac.kr) □

공부해서 꼭 시험에 붙는일이야~ 공립 임용고시 시험에 합격하는거구, 토폴 섬도 볼건데 점수가 잘 나오길 바라는 것~ Rosaro 전이슬

(dew-251@hanmail.net) □

 종일 퍼붓는 눈으로, 온 세상이 하얗게 변했어요. 근래에 보기 드문 큰 눈이래요. 21세기의 향연인가 보죠. 한국에스페란토협회 회원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 하는 새해를 기원합니다. 김영옥 (juvelo49@hanmail.net) □

부산의 여러 동료들과 <2000년말 회화 공부> 하면서 쓴 글입니다. 아무쪼록 <에스페란토 공부>에 열심인 여러분과 함께 이 글을 부산에스페란토문화원(Pusan Esperanto-Centro)의 <신년인사>로 가름합니다.

## Kuraĝon al la Lernado de Esperanto!

- Ĝang Ĝong-Rjoi, Pusan Esperanto-Centro

Estimata sinjor(in)o,

"Hodiaŭ ni finas la paroligan kurson de Esperanto. Ho, Dio, nin benu vi! Ho, Budho, nin benu vi! Ho, Kristo, nin benu vi!"

"Ĉar ni tre diligente paroladis inter ni, malgraŭ okupiteco. Ĉar ni tre kuraĝigante partoprenis en la paroliga kurso. Ĉar ni tre feliĉe-riĉe kuradis sur la Esperanta leciono."

"Sen Esperanto ni neniam ekvidis nin. Sen Esperanto ni neniam ekaŭdis nin. Sen Esperanto ni neniam eksentis nin."

"Zamenhof interligas nin per amikeco kaj kuraĝigo. Zamenhof interlegas nin por amikeco kaj kuraĝigo. Zamenhof interfaras nin por elkoreco kaj kuratingo."

"Iam Zamenhof povos esti la spegulo de nia vivoplano. Iam Zamenhof povos esti la persono de nia vivrealo. Iam Zamenhof povos esti l' ideano de nia vivrevado."

"Esperanto paroligos nin, kiam ni estos diligentaj. Esperanto aŭdigos nin, kiam ni estos kuraĝigaj. Esperanto sentigos nin, kiam ni estos pasipasijaj."

"Espero interligas nin al kuraĝa vivo. Dediĉo interligas nin al feliĉa vivo. Harmonio ligas nin al komuna vivo."

"En la jaro 2001 estu pli riĉaj. En la jaro 2001 estu pli amikaj. En la jaro 2001 estu pli sanaj."

"Ho, Dio, nin benu vi! Ho, Budho, nin benu vi! Ho, Kristo, nin benu vi!"

Kompilis 장정렬 (sufloa@hanmail.net) □



## Zamenhofa Proverbo (1)

(편집자 주: 다음은 L. L. Zamenhof의 에스페란토 속담을 알파벳 순으로 정리한 *Proverbaro Esperanta, Beletraj Kajeroj*, 1974개 속담 중 우리 감정도 알맞다고 생각되는 것을 추려 본 것이다)

1. **Al malriĉulo infanoj ne mankas.**  
가난뱅이 자식부자
2. **Al malriĉulo ovo kiel al riĉulo bovo.**  
가난뱅이에게 계란 한 개는 부자집 소 한 마리.
3. **Al malsaĝulo ne helpas admono, nur bastono.**  
바보는 말로는 안되, 매로 때려야!
4. **Amiko de amiko estas ankaŭ amiko.**  
친구의 친구는 역시 친구
5. **Amiko fidela estas trezoro plej bela.**  
믿을 수 있는 친구는 가장 아름다운 보물
6. **Ankaŭ al ni la suno eklumos.**  
우리에게도 별들 날 있겠지
7. **Antaŭe kion vi devas, poste kion vi volas.**  
먼저 할 일을 하고, 원하는 것을 바라라
8. **Antaŭ la lango laboru la cervo.**  
혓바닥 놀리기 전에 머리를 먼저 써라
9. **Apud plena manĝotablo, ĉiu estas treafabla.**  
푸짐한 밥상 앞에서는 모두가 친절하다
10. **Arbaro aŭdas, kampo vidas.**  
숲이 듣고, 들판이 본다 □

# Al Lingva Demokratio

언어의 민주화를 위하여

- UEA 사업 계획 (2001~2010) -

2000년 텔아비브 UK에서 UEA 위원회는 2001년부터 2010년까지 펼쳐나갈 UEA 사업계획안을 원칙적으로 승인하였다. 이 계획안은 금년 자그레브 UK까지 많은 에스페란티스토들의 의견을 들어 확정하게 되므로 적극적인 충고와 참여를 바란다.

☐ laborplano@esperanto.se

## UEA의 목적

☐ 에스페란토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단체를 결집시켜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 보다 공정한 사회를 이루는 데에 기여한다.

☐ 중립어 에스페란토의 가치를 홍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에스페란토를 배우도록 한다.

☐ 종족, 국가, 경제, 정치, 종교 그리고 남녀를 막론하고 직접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교류하며 협력할 수 있는 단체로 발전시킨다.

☐ 인권과 평화 공존, 삶의 다양성 존중을 활동의 기본으로 한다.

## 사업의 목표

‘캠페인 2000’의 후속 캠페인 ‘Al lingva Demokratio (언어 민주주의를 위하여)’는 에스페란토 운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사업계획으로, 현재 상황을 분석하고 ‘캠페인 2000’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UEA의 활동을 강화하고, 에스페란토운동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전략적 사업계획 (2001~2010)

각 분야별 활동방향은 ‘전문인화’, ‘자연령화’, ‘전세계화’로 잡고 각기 조직은 취약한 부분을 강화할 가장 적절한 사업을 전개하고, 자체 활동을 분석한다. 이 기본계획은 일반적인 것으로 큰 줄기만 제시하는 바, 각 단체는 가능한 한 ‘Al lingva Demokratio’ 이념을 염두에 두고 각자의 조건에 맞는 사업을 채택한다. 분야별 자세한 프로그램은 실제로 활동에 임하면서 상황에 맞게 짚는다. 특별 위원회에서 계획을 작성, 수정, 취소하는 등의 문제를 다루며 구체적인 활동을 지도해 나가고 석 달 간격으로 활동을 보고하고, 2년에 한번 활동을 평가한다.

### 1. 전문인화

교육분야를 전문화하며, 전문직 종사자들이 자신의 직업에서 에스페란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지식인, 대학 교수, 과학자, 사회단체 지도자, 언론인, 공직자, 교사 등 직업인들을 에스페란토 운동에 동참하도록 한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이 시간적으로 여유롭지 못하므로 각 지부에서는 그들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며, 운동권 내의 전문 인력이 고르게 분포되어 목표대로 에스페란토보급 활동에 봉사하고 후원하도록 보살핀다.

### 2. 자연령화

에스페란토계 안팎의 젊은이들에게 에스페란토에 대한 인식을 드높이고 가르친다. 청년들을 에스페란토계에 영입하여 운동에 참여시킨다. TEJO, 각국 에스페란토협회, 그리고 분과협회들이 요즘 에스페란토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 운동의 안팎에서 분열이 자주 일어나므로 상호간의 대화와 협력이 더욱 더 요구된다. 따라서 UEA와 TEJO 임원단은 특별한 사업계획을 세워 활동을 추진해나가며,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한다. 각 지부와 협회는 각종 대회, 봉사, 활동 등을 통해 젊은이와 전문가들을 영입하도록 노력하며 그들을 지도할 기구를 마련한다.

### 3. 전세계화

에스페란토 운동이 아직 정착하지 못했거나 미흡한 지역 국가에 에스페란토를 알리고 교육하는데 주력한다. 에스페란토가 아직 뿌리내리지 못한 나라에서의 에스페란티스토 증원과 활동에 힘쓴다. 유럽이 에스페란토운동의 유일한 무게중심지였던 시대는 끝났다. 에스페란토를 널리 보급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키기 위하여 UEA 지역 위원회를 후원하고 널리 알려야 한다. 지역 대회에서는 에스페란토 지도자 연수와 교육에 주력하며, 모든 단체는 UEA와 ILEI, 그리고 UN 산하 여러 기구와의 관계를 활용하여, 상호 협력하고 전 세계의 의식을 일깨우는 것에 활동의 최우선 순위를 둔다.

## 활동 지침

### 1. 에스페란토 이해

에스페란토 고급 강좌, 에스페란토학 내지 국제 어학에 대한 서적을 간행해서 에스페란토를 알린다. 대내외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써 대상이 되는 인물에게 에스페란토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운동의 주체들이 먼저 올바른 의식을 갖고 교육을 받는다. 수동적이거나 능동적이거나 모든 사람들에게 에스페란토를 알려야 하므로 각기 단체는 그 나라의 문화, 사회, 국제적 활동에 사용되는 정보매체를 연구한다. 민족어로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많은 언어 사용을 위해 번역의 효율성을 최대한 이용한다. 대내적으로는 독서클럽, 학습 동아리, 세미나, 시험, 콩쿨대회 등을 통해 에스페란토 자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에스페란토의 역사, 문학, 사회 정치적 의미를 인식하며, 전문용어학의 발전을 위한 교육적 전통을 강화한다.

### 2. 에스페란토 교육

에스페란토교재 편찬, 심사, 출판을 홍보면에서

나 내용면에서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단 한 명이라도 교육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질을 높인다. 에스페란토와의 만남, 배움의 기회, 교재 등을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그들의 관심을 유발하고, 에스페란토 학습에 이르도록 한다. 처음에는 관심만 보였던 그들이 기초과정을 마친 후 꾸준한 학습을 통하여 에스페란티스토가 되도록 교육 담당자들이 우호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며, 그들도 훗날 에스페란토 운동에 동참하도록 노력한다. 각종 모임과 대회에서 초보자들이 계속 에스페란토계에 남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고립되어 있는 초보자들은 전화나 인터넷으로 에스페란토와의 인연이 유지되도록 한다.

3. 에스페란토 사용

전문직 종사자들을 결집시켜 운동을 활성화한다. 에스페란토가 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유용해야 진정한 언어로 인정받을 것이다. 에스페란토를 함으로써 삶 속에서 가치 있고 흥미로운 무언가를 발견하도록 한다. 과학에서 상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삶의 형태에서 에스페란토가 실질적으로 적용되도록 하며 나아가서는 국내외 각종 대회, 회합, 인터넷에서 각 전문 분야별 단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

□ □ □

에스페란토 書堂 (5)

7-36. **La Majstro diris: "Luksemo kondukas al aroganteco, kaj ŝparemo al humileco. Mi preferas esti humila ol esti aroganta."** (해설) Majstro 스승, 공자, **Luks-em-a** 사치스러운, **arogant-ec-o** 거만함, **ŝpar-em-o** 절약, 근검, **humil-ec-o** 겸손, **preferas** 더 좋아한다. 子曰(자왈), 奢卽不遜(사즉불손)하고 儉卽固(검즉고)니 與其不遜也寧固(여기불손야영고)니라.

7-37. **"La noblulo estas komplete trankvila; la malgranda homo estas ĉiam ĉagrenata."** (해설) **ĉagren-at-a** 걱정하다, 불안하다. 君子(군자)는 担蕩蕩(단탕탕)이요 小人(소인)은 長戚戚(장척척)이니라.

8-2. **Respekto sen decreguloj fariĝas lacigo; singardo sen decreguloj fariĝas timemo; kuraĝo sen**

**decreguloj fariĝas malobeo; malkaŝemo sen decreguloj fariĝas parolpikeco.**

(해설) **decregulo** 예(禮), **lac-ig-o** 피곤하게 하는 것, **sin-gard-o** 스스로 경계하는 것. **tim-em-o** 겁내는 것, **mal-obe-o** 불복종, **mal-kaŝ-em-o** 폭로, **parol-pik-ec-o** 말로 찌르는 것. 恭而無禮卽勞(공이 무례즉노)하고 慎而無禮卽亂(신이 무례즉사)하고 勇而無禮則亂(용이 무례즉란)하고 直而無禮卽絞(직이 무례 즉교)니라.

8-5. **Majstro Zeng diris: "Esti dotita per kapablo, kaj tamen modeste meti demandojn al tiuj, kiuj estas nekapablaj; posedi multajn sciojn, kaj tamen meti demandojn al tiuj, kiuj posedas malmultajn; havi, kvazaŭ li ne havus; esti plena, kvazaŭ li estus malplena; esti ofendita, kaj tamen esti pardonema - Jen la manieroj, en kiuj kondukis unu el miaj antaŭaj amikoj.**

(해설) Zeng 曾子, **dot-it-a** 주어져 있다, **kapablo** 능력, **modeste** 겸손하게, **meti demandon** 물어보다, **nekapabla** 할 수 없는, **scio** 지식, **havi** 가진 것, **kvazaŭ** 마치 ~처럼, **ne havus** 없는 것 같은, **ofend-it-a** 화나게 되다, **pardon-em-a** 용서하다, **kondut-is** 행동했다. 曾子曰(중자왈), 以能問於不能(이능문어불능)하며 以多問於寡(이다문어과)하며 有若無(유약무)하며 實若虛(실약허)하며 犯而不校(범이 불교)를 昔者吾友嘗從事於斯矣(석자오우상종사어사)니라.

8-13. **Kiam la lando estas bone regata, kalkulu malriĉecon kaj malaltan situacion kiel huntindajojn; kiam la lando estas malbone regata, kalkulu riĉecon kaj honoron kiel huntindajojn.**

(해설) **lando** 나라, **reg-at-a** 통치되다, **kalkulu** -라고 알아라, **hunt-ind-ajo** 부끄러워해야 할 일, **riĉ-eco** 富, **honoro** 명예. 邦有道(방유도)에 貧且賤焉(빈차천안)이 恥也(치야)이며 邦無道(방무도)에 富且貴焉(부차귀안)이 恥也(치야)이니라. □

## 인터넷을 통한 회화공부 따라잡기

장정열 (pusanesperanto@hotmail.com), 부산에스페란토문화원

아래와 같이 “인터넷을 통한 회화반 일정 따라잡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에스페란티스토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바랍니다.

제목: 문화원 회화 특강

“회화-2: **PAROLIGA KURSO**:우리는 표현할 줄 안다.” 일시:희망찬 2001년 1월13일부터 3월30일까지 매주 토요일(12회) 오후 2시 - 4시 50분(50분 수업, 10분 휴식, 3회) 장소: 문화원 5층 (경우에 따라 지산간호학원 2 층 강의실)

강사: 장정열

연락처: 051-867-3667 또는 011-562-3379

□ 수강료: \*일반인 일십만원(100,000원), \*고등학생이하 학생은 50,000 원, \*인터넷을 통한 일정따라잡기 (강좌의 부재참가자: 컴퓨터를 이용한 사이버 강좌)의 경우 일반 5 만원, 부재참가자는 이 때, 강사와 일정 상의하여 별도의 과제를 이행해야 함)

□ 교재: 율리오 바기의 원작 소설 “**La Verda Koro**” 복사물, 부교재: 유인물- 1. 한국에스페란토협회주관, <초급>시험문제집, 2 .한국어문(시사, 신문, 수필 등)

참여 신청예상자(존칭 생략): 1. 이종현, 이연주, 최진선, 한영성, 장훈 2. 최수영, 김정순, 조은희, 박연수, 제경호 [단, 참가자가 10 명 넘으면 두 반으로 분반하고, 강사도 초빙할 예정입니다. 추가초빙 강사는 최향숙 또는 강상보, 공길윤 등]

강좌의 목표:

- 에스페란토로 말하기,
- 에스페란토로 제대로 읽기, 3. 매주 열 개의 새 낱말 익히기
- 자신의 생각을 에스페란토로 표현하기
- 에스페란토 문장의 듣기와 이해력 고취

### 초청의 글

“에스페란티스토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다.” -- 위의 말은 율리오 바기(**Julio Baghy**)가 한 말입니다. 에스페란티스토가 되려면 처

음의 마음, 처음의 정신, 처음의 자세, 처음의 준비, 처음의 공부, 처음의 연습이 실로 중요함을 알리는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번 열심히 공부한 여러 동료들과 함께 한 <**Mazi en Gondolando**>가 에스페란토 문법 공부에 이은 에스페란토계를 향한 첫 문턱 넘기(회화-1)라 한다면, 이번 2001년 신춘에 함께 할 <**La Verda Koro**(초록의 마음)>는 에스페란토 계에서 에스페란티스토와 함께 하는 첫 나들이(회화-2)라 할 수 있습니다.

율리오 바기의 에스페란토 원작 소설<초록의 마음>은 읽는 이를 1910년대-1920년대로 이끌어 가, 우리 초심자에겐 어법, 표현, 정신에 있어 가장 에스페란토 분위기에 접할 수 있는 소설로서 학습 방법에 따라 효과적인 회화 교재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율리오 바기의 언어정신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회로 활용합시다!

### 강의일정

제1강 1/13

오리엔테이션(학습방향 및 참가자의견 듣기)

□ 1교시: 회화 <제1과: 강습회장에서-에스페란토와 문화> 강습생들의 자기소개, 러시아 극동지방인 니콜스크 우수리스크 소도시의 모습 등 소설의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다. 참가전 과제:**ruso, ĉeĥo, polo, latvo, slovako, rumano, germano, ĉino, hungaro, koreo, japano** 등 민족이름 알기

□ 2교시: 회화 <제2과: 교사와 여학생> 수업을 마친 뒤 교사와 여학생 마랴 볼스키 양이 집으로 가는 길에서의 두 사람의 대화. 포로수용소에서 자원봉사중인 교사와, 키타이스카야 가에 사는 마랴 양이 <일상의 삶을> 에스페란토로 생각하고 표현하다.

□ 3교시: 회화, 중점 강화사항: 자기소개하기 (나의 가족, 취미, 관심분야, 내가 잘 하는 것, 내가 못하는 것, 개인의 삶, 공동체의 삶, 나의 꿈, 나의 장래희망, 자신이 추천하는 도서/잡지/신문/시/ 소설)

□ 과제물: 1. 1과(p. 5) 한 번 읽고, 쓰고 해석. (e-mail로 보낼것을 추천)

제2강 1/20

□ 1교시-2교시: 회화 <제2과: 교사와 여학생>



교사와 마라는 세상의 흐름도 이야기한다. 전쟁, 평화, 하얀시베리아에 핀 붉은 꽃... 붉은 시베리아의 하얀꽃... 환상과 고향에 대한 그리움...

□ 3교시: 중점 강화사항: 나의 생각/의견/ 주장 /충고/ 동감/느낌

□ 과제물: 1. 작문

### 제3강 2/3

□ 1교시-2교시: 회화 <제3과: 어린 시인> 중국인 소년 이치오 팡과 그의 누이 순플로로의 대화, 미국인과의 만남, 중국인 소년의 <우리 언어에게>라는 시를 쓰다. ...에스페란토는 내게 새로운 문화와 하고픈 일을 주었는데, 내가 즐 것은 무엇인가? 나의 온 마음을 받아 주오!

□ 3교시: 중점 강화사항: 상대방의 말을 듣고 그대로 옆 사람에게 전달하기

□ 과제물: 1. 해석

### 제4강 2/10

□ 1교시-2교시: 회화 <제4과: 공원에서의 수업> 러시아 달력의 휴무일: 공원에 모인 강습회참가자들. 교사는 그 자리에 없다. 유능한 선배 에스페란티스토 쿠라토프 선생의 에스페란토 입문동기: 러시아 정치상황보다는 일상의 삶에 더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러시아 여성들과, 쿠라토프 씨의 에스페란티스토가 된 내력을 듣다.

□ 3교시: 중점 강화 사항: 교재 내용을 에스페란토와 우리말로 표현하기

□ 과제물: 1. 작문

### 제5강 2/17

□ 1교시-2교시: 회화 <제5과: 흥미로운 날> 대령을 통해 에스페란토를 러시아 시민들에게 소개하는<에스페란토 보급의 아침> 여기서 블라디보스톡 에스페란토협회의 보나고 씨의 초청 마라 양과 교사 나다이 씨의 대화에 끼어드는 중국인 소녀 순플로로

□ 3교시: 중점 강화사항: 내용에 대한 이해 인 지도를 높이기 위한 문답식 수업

□ 과제물: 1. 해석

### 제6강 2/24

□ 1회화-2교시: 회화 <제6과: 흥미로운 저녁> 마라 양 집으로 초대된 교사. 교사가 에스페란토서적 과 에스페란토 원작 시집을 받게 된 1916년 11월에 대한 이야기

□ 3교시: 중점 강화의 평가: 낱말이해도 측정, 문장이해도 측정

□ 과제물: 1. 작문

### 제7강 3/3

□ 1교시-2교시: <제8과: 블라디보스톡에서> 초대된 강습생들이 블라디보스톡으로 단체여행, 보나고 씨가 제1차 세계에스페란토대회 참관을 설명함. 자멘 호프 선생을 직접 만났을 때의 감회. 일본군 소위 오바 씨와의 만남. 병원의 위문방문

□ 3교시: 중점 강화사항: 한 개의 사물/인물에 대한 느낌 /희망/독서보고서

□ 과제물: 1. 해석

### 제8강 3/10

□ 1교시-2교시: 회화 “제9과:이치오 팡의 동화” 미국인과 이치오팡의 시 소개, 중국문화를 에스페란토로 소개, 순플로로와 미국인의 친밀감 형성.

□ 3교시: 중점 강화사항: 자유 회화[특정 주제 하에]

□ 과제물: 1.작문

### 제9강 3/17

□ 1교시-2교시: 회화 <제10과:마라의 일기장에서> 1919년-1920년의 극동아시아의 정세 속에 크고 작은 이야기, 전쟁에서의 피해와 울분과 평화에 대한 염원

□ 3교시: 중점 강화사항: 자유 회화[특정 주제 하에]

□ 과제물: 에스페란토로 일기 쓰기[10문장이상]

### 제11강 3/24

□ 1교시-2교시: 회화 <제11과:니콜스크 우수리스크 에스페란토 협회> 강습회 뒤 에스페란토 단체를 설립하다. 결혼식, 전쟁이 끝난 뒤 귀국하는 친구들과의 석별의 시간.

□ 3교시: 중점 강화사항: 종합평가[특정 주제로]

### 제12강 3/30

□ 1교시-2교시: 회화<제12과:시베리아여, 안녕!> 마라는 평소 존경하던 교사와의 이별을 앞두고 고민과 괴로움 속에 나날을 보내다, 쿠라토프 씨와 이별하는 파울로 나다이. 귀향선에 탄 나다이에겐 전해지는 한 통의 편지. “오, 하나님께서 그대 가는 발 걸음마다 함께 하기를! 평생 영혼으로 함께 하겠다”고 다짐하는 마라의 편지.... 아듀, 시베리아!

□ 3교시<평가>: 그동안의 학습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방향모색. □

## ‘국제어 에스페란토 운동에 관한 프라하 선언’ 해설(1)

대한매일 논설위원 박강문 (parkk@columnist.com)

<< [1. 민주주의] 의사 소통 체계가,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 특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라도 구사하게 되기까지 여러 해 괴로움을 겪게 하는 것이라면, 근본적으로 반민주적입니다. 모든 언어와 마찬가지로 에스페란토가 완벽한 것은 아니지만, 평등한 세계 의사 소통을 이루게 하는 연장으로 다른 어떤 언어와 견줄 수 없이 뛰어납니다.

우리는, 언어 불평등이, 국제적인 수준을 포함하여 모든 수준에 걸쳐, 의사 소통의 불평등을 가져오게 한다고 단언합니다. 우리 운동은 민주적인 의사 소통 운동입니다.>>

□ □ □ □ □

‘국제어 에스페란토 운동에 관한 프라하 선언’(이하 프라하 선언)은 1996년 프라하에서 열린 제81회 세계에스페란토대회에서 채택되었다. 에스페란토 운동의 정신과 그 지향점을 간략하면서도 명확하게 밝힌 이 선언은 앞머리글과 7개 항으로 돼 있다.

이 선언의 앞머리글은 다음과 같다.

<<에스페란토를 장려하는 세계적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는, 이 선언을 모든 정부와 국제단체에, 그리고 선량한 뜻을 지닌 모든 분께 드립니다. 여기 표현된 목적을 위해 매진할 확고한 우리 의도를 밝힙니다. 그리고, 우리 노력에 동참하도록 각개 단체에, 개개인에게 요청합니다.

국제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보조어 계획안으로 1887년 태어나 생명력 넘치고 의미 풍부한 언어로 급속히 자란 에스페란토는 이미 백 년도 넘는 세월 동안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엮는 구실을 해 왔습니다. 그 동안 내내 이 언어 사용자들이 지향하는 바는 중요한 것이었으며 현실적인 것이었습니다. 몇몇 민족어가 세계적으로 쓰이고, 통신기술이 발전하고, 언어 학습의 새 방법이 발명되었지만, 다음과 같은 원칙들을 실현할 것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원칙들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언어 질서를 이룩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첫째 항목이 ‘민주주의’다. 이번 호부터 한 호에 7개 항목씩 7회에 걸쳐 다루기로 한다.

프라하 선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첫째 항목이다. 언어 불평등 해소를 강조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다고 해서 차별받아

서는 안된다. 이것은 이미 1948년 12월 10일 선포된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돼 있다.

세계인권선언 제2조 제1항은 다음과 같다. “이 선언에서 밝힌 모든 권리와 자유는 종족, 살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배경, 재산, 생득적 지위 또는 기타 지위가 어떠한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

미국은 자국내에서 부분적으로 영어 아닌 언어를 존중하기는 한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정부 기관의 공고문에 영어와 스페인을 함께 쓴다. 정통영어와는 다른 흑인영어를 학교에서 가르치도록 허용하는 곳도 드물게는 있다. 언어에 대한 차별은 한 나라 안에서라도 없어야 하지만 국제적으로도 없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이 나라밖에서는 영어의 강력한 힘을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아무리 영어를 잘한다 해도 미국인이나 영국인처럼 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그들과 외교적으로 협상을 하거나 상업적 또는 법률적으로 다룰 때 의사 소통을 영어로 하면, 그들은 엄청나게 유리하고 우리는 언제나 매우 불리하다.

유럽연합은 언어 평등을 위해 회원국의 언어를 모두 공용어로 하고 있다. 그래서 11개 국어가 공용어로 규정돼 있다. 공용어를 이렇게 많이 인정한 것은 얼핏 보면 언어들의 독립성을 존중한 듯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11개를 공용어로 해 놓았으나 회의 같은 것을 할 때 불편하기 때문에 영어와 불어를 실무언어라 하여 이 두 가지를 쓰고 있다. 인구가 많고 국력이 센 독일은 불만이 크지만 참고 있다. 결국 유럽연합은 언어 불평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영어나 불어가 국제적으로 많이 통용된다고는 하지만, 이 언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많은 나라 사람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평등하다. 평등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다. 국제적인 의사 소통을 위해 중립적으로 쓸 언어가 수없이 제시되었지만 오늘날 그 가운데서 가장 생명력 있고 합리적인 것이 에스페란토다. 어느 나라 사람이나 국제적으로 의사 소통을 할 때 에스페란토를 쓰면 어느 한 쪽이 크게 이득보거나 손해보지 않는다. 평등한 것이다. 그래야 민주주의가 될 수 있다. 에스페란토 운동은 언어 민주주의 운동이다. □

## Zamenhofa Tago en Seulo

La 16an de decembro okazis Zamenhofa festo ĉe KEA oficejo. Ĉirkaŭ 40 Koreoj partoprenis kaj 3 Japanoj, 2 Ĉinoj, 1 Kataluno, kaj 1 Ĉin-Koreo kontribuis por internacia etoso.

Ĉe la festo, maljunuloj memorigis la signifon de la Zamenhofa vivo kaj junuloj prezentis vere gajan kanton - kune faris la feston sufiĉe amika. Jen sur la fotoj kaptitaj en la tago, vi povas vidi la humoran etoson de la festo.

En la sama tago, KAEManoj diskutis pri la venonta Azia Kongreso, okazonta en Koreio en 2002. □



신임 청년회장을 맡은 아마토(Amato)



최봉열 선생님



한국에 더 오래 있고 싶어하는 루베노(Ruben)



재미있는 노래로 분위기를 돌구는  
청년회원들



멋지게 자기소개를 하는 아글로(Aglo)

## 아프리카는 지금 ?

번역 조명자 (Goja, ds2edr@kosha.net)

### 배낭

배낭은 나이지리아와 가나 사이에 있는 조그만 나라로 1991년, 제 2회 아프리카 대회를 열기도 하였다. 대회 후 배낭 협회의 활동은 거의 전무한 상태였으나 1999년 10월 독일의 Stuttgart시와 에스페란티스토들의 도움으로 배낭의 Codji마을에 학교가 설립되면서부터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다. 어린이들은 일주일에 1시간씩 에스페란토를 배우는데 최근에는 2~3시간씩 수업을 받기도 하였다. **Anny Hartwig, Gisela Passarella, Atilio Orellana Rojas, Katalin Smideliusz**님들이 보내준 녹음 테이프로 그들은 문법보다는 노래로써 에스페란토 배우기를 즐기고 있다. **Jules Verstraeten**님은 교재를 제공하고, 다른 몇몇 에스페란티스토들은 현금, 필기도구, 공책, 인형, 비스킷 등을 보내주면서 끊임없이 돕고있다. 금년 7월 7일 그 구호품들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뿐만 아니라 전교생에게 상을 주는 형식으로 골고루 지급되었으며, 60명의 어린이들은 유니폼을 받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왕성한 활동에 힘입어 금년 10월 부터는 같은 지역에 있는 다른 학교 2곳에서도 에스페란토를 가르치는데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요즘 Codji마을에서 "Esperanto"는 문맹자들 입에 매일 오르내리는 단어가 되었다.

주소: **Jean Codjo, Esperanto-Afrik'**, 03 BP 3589 Cotonou, Benino; [esperantaf@firstnet.bj](mailto:esperantaf@firstnet.bj)  
**Martin Schaeffer; esperantst@aol.com** ☐

### 배낭, 나이지리아

배낭 Cotonou에 있는 아프리카 에스페란토 센터 대표 **Jean Codjo**님과 함께 배낭 에스페란티스토 5명이 9월 17일 나이지리아에서 열린 **Badagry E-Movado (BEM)**의 공식적인 발족행사에 참석했다. 전회장 **Mikpoeyevo K.**의 환영사 후, 현직 회장 **Vidosodji**가 BEM의 역사를 소개하고, **Codjo**는 UEA에 대해서, 그리고 "아프리카부터 우선"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Vidosodji**회장은 덧붙여 에스페란토 교재의 부족함과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도움을 요청했으며, 이에 아프리카 에스페란토 센터는 BEM앞으로 많은 양의 에스페란토 교재와 30000프랑의 후원금을 전달하였다. 또한 **Badagry**시 에스페란티스토 5명에게는 12월에 열린 제 8차 토고 에스페란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하였다. ☐

### 토고

토고 에스페란티스토들의 헌신적 도움으로 UEA의 아프리카 사무국(AO)이 토고의 수도 로메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Raoul Hounnake**와 **GBEGLO Koffi**님이 운영책임자로 있으면서 해마다 단계별 에스페란토 강좌 개최, UEA/ILEL 에스페란토 시험 실시, 국가 대회를 개최하는 활동을 보이고 있다. 아프리카 대회도 1990년 토고에서 제 1회 아프리카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시작된 것이다.

제 8회 토고 에스페란토 대회가 12월에 개최됐는데, 7회 대회 때 나이지리아, 가나, 배낭, 부르키나 파소, 상아 해안 등 이웃나라로부터 많은 에스페란티스토들이 참석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번 대회는 오직 토고국 만의 대회였다. **Aneho**시 민영라디오 방송국 **Delta Sante**에서 정기적으로 에스페란토로 에스페란토에 관한 방송을 했다(1999~2000년). ☆

### 가나, 나이지리아, 세네갈, 코트디부와르

전반적으로 에스페란토 운동을 전진시키기 위한 노력이 부족하나 나이지리아 협회 **ENEF**의 활동은 **Princo Henriko, Attah Evaristus, Kunle Kamson**님들의 노력으로 기대가 되는 바이다. 아프리카 에스페란토 운동을 위해서는 근본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현실을 인식하고 베를린 UK때 아프리카에서의 보다 나은 에스페란토 운동을 위한 성명을 발표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확고한 계획에 따라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프리카부터 우선'이라는 프로그램은 아프리카에서의 활동을 실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몇 가지를 보여주는데, 그 중의 하나는 아프리카 재단이 마음놓고 쓸 수 있는 꾸준한 후원금이다. **Etsuo Miyoshi, William R. Harmon, Renato Corsetti**님들의 후원금은 아프리카 재단의 어려운 재정에 원동력이 되었다. 특히 **Renato Corsetti**씨는 1980년부터 20년간 아프리카 운동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Hans Bakker**씨처럼 전 세계 에스페란토운동을 위해 어디에서나 누구에게나 없어서는 안될 훌륭한 에스페란토 운동가이다. 아프리카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아프리카 재단에 기부금과 함께 이미 참여했고, 현재 참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참여하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

## La Silento de la Karulo (3)

번역 장정열, 부산에스페란토 문화원장 (sufloa@hanmail.net)

## 7. MIA VOJO

En la mondo ankaŭ troviĝas multegaj la vojoj.  
En la monto troviĝas ŝtonaj la vojoj. En la maro troviĝas ŝipaj la vojoj. En la aero troviĝas lunaj-stelaj vojoj.

La fiŝkaptanto faras paŝojn sur la sablaro ĉe la riverobordo.

La verdajorkoltanta virino surtretas la aromherbon en la kamparo.

La malfortulo sekviras la vojon de la peko.

La justaĝulo surtreta glavoborderon por justeco.

La subeniranta suno en okcidentamonto surtretas la vesperan krepuskon.

La klara roso de printempa mateno glatiras de florkapo.

Sed, la unika duo estas en mia vojo en tiu ĉi mondo.

La unua estas la vojo brakumita min en brusto de la karulo.

La alia, se ne, estas la vojo brakumita min en brusto de la morto.

Ĉar, se mi ne brakumiĝus en brusto de la karulo, la sola alternativo estas pli malfacila kaj suferata, ol la vojo de morto.

Ha! Kiu faris mian vojon?

Ha! Ne povas fari tion en la mondo la karulo, krom neni.

Se la karulo faris mian vojon, kial li ankaŭ faris la vojon de morto?

## 8. VEKIĜINTE EL LA SONĜO

Li amus min, se li estus mia karulo, sed li vizitas en ĉiu nokto nur ĝis ekster mia pordo, nur sone en paŝoj, envene neniam, kaj poste li retroforiras, ĉu tio estas amo?

Sed mi eĉ per miaj paŝoj neniam iris ĝis ekster la pordo de la karulo.

Eble amo nur estus en la karulo.

Ha, mi el la sonĝo ne vekiĝis je liaj paŝoj, sed jam la sonĝo estis, ke mi estis rajdinta sur la nubon, por renkonti la karulon.

## 7. 나의 길

이 세상에는 길이 많기도 합니다.

산에는 돌길이 있습니다. 바다에는 뱃길이 있습니다. 공중에는 달과 별의 길이 있습니다.

강가에서 낚시질하는 사람은 모래 위에 발자취를 냅니다. 들에서 나물 캐는 여자는 방초(芳草)를 밟습니다.

악한 사람은 죄의 길을 좇아 갑니다.

의(義)있는 사람은 옳은 일을 위하여는 칼날을 밟습니다.

서산에 지는 해는 붉은 놀을 밟습니다.

봄 아침의 맑은 이슬은 꽃 머리에서 미끄럼 탑니다.

그러나 나의 길은 이 세상에 둘 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님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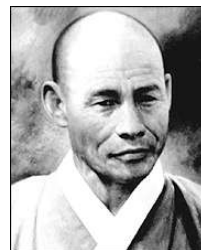
그렇지 아니하면 죽음의 품에 안기는 길입니다.

그것은 만일 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면, 다른 길은 죽음의 길보다 험하고 괴로운 까닭입니다.

아아 나의 길은 누가 내었습니까?

아아 이 세상에는 님이 아니고는 나의 길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길을 님이 내었다면, 죽음의 길은 왜 내셨을까요. □



만해 한용운님의 시  
번역 연재

## 8. 꿈 깨고서

님이면은 나를 사랑하려면, 밤마다 문 밖에 와서 발자취 소리만 내고, 한 번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도로 가니, 그것이 사랑인가요.

그러나 나는 발자취나마 님의 문 밖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사랑은 님에게만 있나 봐요.

아아 발자취 소리가 아니더면, 꿈이나 아니 깨었으려면, 꿈은 님을 찾아가려고 구름을 탔었어요. □

## 노신의 소설 감상 (2) - 광인일기

번역 이영구, 협회 이사 (ykli@maincc.hufs.ac.kr)

4.

아침에 나는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천라오우가 밥을 날라왔다. 채소 한 접시, 찐 생선 한 접시. 이 생선의 눈깔은 희고도 단단했다. 입을 벌리고 있는 모양이 사람을 잡아먹으려는 그 놈들과 흡사했다. 몇 젓가락 먹어봤지만 생선인지 사람인지 미끼미끼한 게 도무지 분간할 수 없어서 뱃속의 것을 전부 토해 버렸다.

“라오우, 내 하도 갑갑해서 마당을 좀 거닐고 싶으니 큰형님께 말해주게.”

내가 이렇게 말하자, 라오우는 대답도 하지 않고 나가더니 한참 후에 다시 와서 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꿈쩍도 않고 그들이 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연구해 보기로 했다. 그들이 나를 자유롭게 놓아줄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나 다를까, 큰형은 한 늙은이를 데리고 천천히 걸어왔다. 그 늙은이의 눈에는 흉악한 빛이 가득 차 있었는데 내게 들킬까 봐 머리를 수그리고 땅을 내려다보면서도 안경테 너머로 흘끔흘끔 나를 훑쳐보고 있었다.

“오늘은 펍 나아 보이는구나.”

하고 큰형이 말했다 나는,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큰형이 다시 말했다.

“오늘은 허(何) 선생께 널 진찰해 주십사고 부탁드렸다.”

그래서 나는 “좋습니다.”하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 늙은이가 곧 망나니 노릇을 하는 자라는 것을 내가 어찌 모르겠는가, 맥을 짚어본다는 핑계로 살이 찢는지 말랐는지 살펴보려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이 공로로 자기도 고기 한 덩어리를 분배받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태연했다. 비록 사람을 잡아먹진 않지만 그 놈들보다 훨씬 대담했다.

나는 두 주먹을 불쑥 내밀어 그가 어떻게 나오는가 보았다. 그 늙은이는 앉아서 눈을 감고 한참 동안 만져보더니 또 한참을 우두커니 있다가 그 흉측한 눈을 뜨고는 말했다.

“쓸데 없는 생각일랑 말고, 조용히 한동안 요양

하게 되면 곧 나아질 겁니다.”

쓸데 없는 생각하지 말고 조용히 요양하라, 요양해서 살이 오르면 그 놈들은 물론 그만큼 더 먹을 수 있겠지만 내겐 무슨 이익이 있으며 어떻게 나아질 수 있다는 말인가? 그 놈들은 사람을 잡아먹고 싶어하면서도 수법이 비겁하고 음흉하여 감추려고 하기 때문에 감히 덤벼들지 못하는 것이다 정말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었다 나는 참을 수 없어 큰소리로 웃어버렸다. 그랬더니 기분이 매우 좋아졌다. 이 웃음 속에 용기와 정의감이 들어 있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늙은이와 큰형은 나의 이 용기와 정의감에 억눌려 얼굴빛이 변해 버렸다.

그러나 내게 용기가 있으니 그들은 더욱더 날 잡아먹고 싶어하는 것 같다. 알량한 이 용기 덕분에 말이다. 늙은이는 밖으로 황급히 나가더니 멀리 가지 않아서 큰형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빨리 먹어치웁시다.”

큰형도 머리를 끄덕였다.

아, 형마저, 형마저도 알고 보니 한패였구나! 이 커다란 발견은 비록 뜻밖의 일 같긴 했지만 사실은 전부터 짐작하고 있던 것이었다.

패거리들을 모아 나를 잡아먹으려는 사람이 바로 내 형인 것이다.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 내 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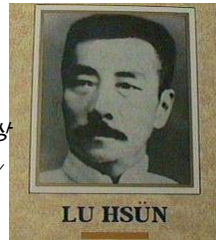
나는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의 동생인 것이다.

나 자신이 잡아먹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의 동생인 것이다



노신 (<http://home.hanmir.com/~luxun/>)

에스페란토 문학인 노신의 소설 감상  
사진: <http://home.hanmir.com/~hün/>



5

요 며칠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았다 가령 그 늙은이가 망나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의사라면 그렇다 해도 역시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이다 그의 선대 스승 이시진(李時珍)이 쓴 『본초(本草) 무엇』이라는 책에는 분명히 사람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다고 써어 있다. 그래도 자기는 사람을 잡아먹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 집 큰형에 대해서도 조금도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니다. 그는 내게 글을 가르칠 때 자기 입으로 ‘아이를 바꾸어 먹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또 한 번은 우연히 어떤 나쁜 사람의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는 곧 그 놈을 당연히 죽여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고기를 먹고 그 가족 위에서 잠자야 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 때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한 나절이나 가슴이 팔딱거렸다. 옛그제 늑대촌의 소작인이 와서 간을 먹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도 그는 조금도 이상히 여기지 않고 연방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 형의 생각이 옛날과 다름없이 잔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미 ‘아이를 바꾸어 먹음’ 정도라면 무엇이랴도 바꿀 수 있고 어떤 사람이라도 잡아먹을 수 있을 것이다.

옛날에 나는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기만 하고 어물어물 지나갔다. 이제서야 그가 이야기를 들려 줄 때에 입가에 사람의 기름이 칠해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마음속에는 사람을 잡아먹고 싶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6

캄캄해서 낮인지 밤인지 알 수 없다. 짜오가네 집 개가 또 짖기 시작한다 사자같이 흉악한 마음, 토끼같이 겁쟁이이면서, 여우같이 교활하게..... □

## El Popola Ĉinio

에스페란토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월간지중에 하나인 **El Popola Ĉinio**가 2001년 1월부터는 종이판은 내지 않고, 인터넷 판으로만 내기로 결정했다. 그 주소는 다음과 같은데, 처음 시도하는 것이어서 약간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가치 있는 시도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http://www.chinareport.com.cn/>

<http://www.espero.com.cn/>

Chen Ji (chenji99@yahoo.com.cn) □



## Humoro (Ridu!!!)

Du monŝparemaj amikoj renkontiĝis ĉe aerhaveno:

A: "Kien vi planas forveturi?"

B: "Al Havajo. Tio estas mia postnupta vojaĝo"

A: "Gratulon! Donu al mi plezuron prezenti min al via nova edzino. Kie ŝi troviĝas?"

B: "Oh, ŝi restas hejme. Ŝi jam partoprenis postnuptan vojaĝon. Mi edziĝis al vidvino" □



"Miaj intencoj estas seriozaj, kredu min. Mi proponas al vi seriozan amon dum la daŭro de la tuta kongreso!" (El: Tibor Sekelj, Ridu per Esperanto, Internacia Kultura Servo, Zagreb, 1973) □

## 새해인사하러 오세요

모든 회원님들께,

어려운 한해를 보내고 희망과 기대 속에 2001년의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 서로의 건강과 성공을 축복하는 새해 인사를 나누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새해 모임을 마련하였으니 꼭 나오셔서 인사를 나누기 바랍니다.

일시: 2001년 1월 13일(토요일) 18:30-20:00

장소: 협회 사무실

회비: 일반 5,000원 이상, 학생 3,000원

내용: 신년인사 교환, 새해의 노래

협회 이사님들께,

2001년 1월 13일 토요일, 새해의 첫 상임이사회가 개최되고, 의결해야 할 중요한 안건이 상정되어 있으니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회 주요 안건은 지난해 결산과 2001년 새해 사업계획 및 예산, 2001년 한국대회, 2002년 아시아 대회 등입니다.

일시: 2001년 1월 13일(토요일) 17:00-18:30

장소: 협회 사무실

□ 음식을 푸짐하게 차리는데 협조 해 주세요. 떡, 과자, 음료수, 감주, 술 등 음식을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은 사무국(02-717-6974)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2001 전국 겨울 합숙 안내

2001 **Vintra Renkontiĝo de Esperantistoj**

모두가 새 천년을 맞아 뭔가 잘 될 거라는 기대를 걸어봅니다. 취직, 내 집 마련, 결혼, 건강, 직장에서의 진급, 행복한 가정... 다들 이런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에스페란티스토로서 당신은 무슨 기대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에스페란티스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좀 [영똥한 생각]을 합니다 - [새 천년에는 새 언어를]! [누구나 지구촌 시대를 외치지만 지구촌의 공용어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가족이 가족으로 성립되려면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듯이 이 지구촌 가족들도 하나의 공통어를 갖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 과연 영똥한 걸까요? 아니면 당연한 일일까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오십시오. 그 [당연한 일]이 거부당하는 현실을 성토하고 바로잡으려는 또 한번의 몸부림을 해봅시다.

우리가 이만큼 누리는 [에스페란토의 맛]을, 우리 후손들도 맛보게 하려면 여기서 멈출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이번 합숙에서는 아무리 왕초보라도 입을 열게 해주는 특별 프로그램 **GK-Ludo**를 도입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어 굳은 당신의 입을 이번에 에스페란토로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스페란토협회 교육이사 마 영 태

기간: 2001년 2월 2일(금) 오후 4시 ~ 3일(일) 오후 2시

장소: 대전 유성 청소년자연수련원

(042-822-9591, 9592)

주최: 사단법인 한국에스페란토협회

**KOREA ESPERANTO-ASOCIO**

연락처: 02-717-6974 (keast@soback.kornet.net)

### 일정표

□ **GK-Ludo**: **Komencanto**들이 경쟁적으로 **Gvidanto**들에게 에스페란토로 말을 걸어 대화를 한 후, **Gvidanto**들의 사인을 받는 놀이. 사인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에게 시상.

□ **Horo por religio**(종교시간)에는 각 종교별 예배/분과 모임의 시간을 갖는다.

### PROGRAMOJ

□ 아동반 (강사: 김수옥):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반

□ 초보반 (강사: 아마토):

에스페란토 초보자를 위한 반

□ 회화반 (강사: 나병도):

기초문법을 마치고 에스페란토 회화에

도전하고자 하는 이를 위한 반

□ 노래·게임반 (강사: 마영태):

노래와 게임을 통해 에스페란토를

즐겁게 배우는 반.

□ **Lando de esperanto**:

즐거운 오락 시간

(장기자랑 노래 게임 등) □



## 제33차 한국에스페란토 대회 안내

- 일시: 8월25일(토) 13:00 - 8월26일(일) 13:30
- 장소: 새한연수원 (경북, 경산시)
- 후원(예정): 경상북도, 매일신문사, **KBS**
- 참가비:

- 1) 내국인 (1개월 전까지 참가신청)
  - (1) 일반: **KEA** 회원40,000원 (4인1실, 1박3식)  
50,000원 (3인1실, 1박3식)  
**KEA** 비회원, 일반 **KEA**회원 + 10,000원
  - (2) 학생: **KEA** 회원30,000원 (4인1실, 1박3식)  
**KEA** 비회원 학생 **KEA**회원 + 10,000원  
이린이(6세 이하)는 무료
  - (3) 명예참가자: 30,000원  
(대회불참, 단 대회참가자 기록  
책자 및 기념품)
- 2) 외국인 (참가 사전 신청, 참가비 당일 납부)
  - (1) **UEAA**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50,000원 (3인1실, 1박3식)
  - (2) **UEA B**국: 중국, 월남 등 40,000원  
(4인1실, 1박3식)

- 문의: 나의석 (011-9577-7345, 053-475-1887)  
**taesperanto@hanmail.net**

- 특기사항:
  - (1) 7월말까지 참가신청 해주시면 행사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 (2) 등록할 때에 경품 추첨권 발행, 폐회식 직전에 추첨, 시상
  - (3) 문예/웅변 공굴: 5분간 에스페란토 시/수필 낭송 또는 웅변 (10일전까지 신청)
  - (4) 친교의 밤: 10분 이내의 노래, 단막극, 춤, 악기 연주 등 (10분 이내), 10일전까지 신청
  - (3) 경매: 경매품 기증해 주세요 (총무 연락 요망)
  - (4) 명예참가: 대회를 후원하는 뜻에서 많이 신청해 주세요.
  - (5) **UEA/ILEI Internacia Ekzameno** (초급, 중급): **UEA/ILEI** 발행 어학능력 자격증 수여. 많이 신청하여 실력을 시험해 보세요. (1개월 전까지 총무에게 신청 요망)
  - (6) 대회 후 경주관광(불국사, 석굴암, 일본인 마을 나자렛 방문)

## 대회 행사표

- 8월25일(토)
  - 13:00-20:00 도서판매
  - 13:00- 등록 및 행운권 수령
  - 13:30-17:50 **UEA/ILEI** 국제어학검정시험(1)
  - 14:00-17:50 어린이들끼리 즐겁게(1)
  - 14:00-15:00
    1. 기초회화 "**Pasporto al la Tuta Mondo**"
    2. 에스페란토 대화
  - 15:10-15:50 노래하며, 배우며 - 마영태
  - 16:00-16:50 문예/웅변 공굴
  - 17:00-17:50 대회대학
    - (1) "한국어와 에스페란토" - 박기완 목사
    - (2) "**Koreaj noveloj**" - Prof. Cho Sung-Ho
  - 18:00-19:00 저녁식사
  - 19:10-20:00 개회식
  - 20:10-21:30 친교의 밤
  - 21:30- 잔디 밭에서



- 8월26일 (일)
  - 07:00-08:00 아침식사
  - 08:00-12:00 도서판매
  - 08:10-08:20 단체 사진 촬영
  - 08:30-11:25 어린이들끼리 즐겁게(2)
  - 08:30-11:25 **UEA/ILEI** 국제어학검정시험(2)
  - 08:30-09:20 분과모임  
(청년, 대학생, 의사회, 산악회, 카톨릭회 ...)
  - 09:30-10:10 대회대학
    3. "에스페란토와 인터넷" - 김형근 편집부장
    4. "**Kio estas Esperanto-Movado**"  
- D-ro. Kobayasi Tukasa
  - 10:15-10:50
    1. **KEA** 임원과의 대화
    2. 아세아 에스페란토 운동
  - 11:00-11:50 경매 및 행운권 추첨
  - 12:00-12:30 시상 및 폐회식
  - 12:35-13:30 점심
  - 13:30-18:00 대회 후 관광  
(경주-불국사, 박물관, 나자렛 마을) □

## KORESPONDI

Saluton. Mi estas Razen Manandhar, juna esperantisto de Nepalo, la lando kie lokiĝas la plej alta monto. Mi kaptas ĉi ŝancon por kontakti jena bona okazo.

**MI DEZIRAS AL VI FELIĈAN, SANAN KAJ SUKCESAN NOVAN JARON 2001!**

Mi lernis Esperanton en 1990 kaj de tiam me agadas je la landa movado. Mi partoprenis la UKon en Koreio en 1994. Nun mi preparas Nepali-Esperanto vortaron. Kaj mi ankaŭ instruas Esperanto per korespondo al kelke da junuloj. Mi estas individua membro de UEA kaj estas fakdelegito de budhismo, ĵurnalismo kaj instruado. Mi estos tre feliĉa doni al vi ian informon pri mia lando kaj landa agodo.

Mi estas profesia ĵurnalisto por la angla ĵurnalo, The Kathmandu Post, kiun vi povas legi pere de [www.nepalnews.com](http://www.nepalnews.com).

Mi estos feliĉa se iu de via lando volus korespondi rete kun mi. Kun salutoj, Razen Manandhar ([rozen\\_manandhar@hotmail.com](mailto:rozen_manandhar@hotmail.com))

## Jarfina Kunveno de KEJ

Sezamo, Rubeno, Amato, Knabo, Bonbelo kiu malsatis dumlonge, Kristalo, Diamanto la fratino de Kristalo, Senŝuo kiu lasis donacon hejme, Nugu kiu plendas pri sia dikiĝo laste, Kim Hiongun kiu nura el partoprenintoj ne havas E-nomon, Rosaro, Vigla kaj Kisu kunvenis ĉe KEA oficejo, en la 27a de decembro 2000.

Pluraj el ni forgesis aŭ ne memoris ke prepari donacon estas forte rekomendinde. Tamen improvizaj kuponoj evitis ekskluzdi nepreparintojn kaj efikis por amuzi. Kalendaroj, loteriaj biletoj, monujo, akcesoraĵujo, akcesoraĵo por poŝtelefono, parfumo, alkoholaĵeto, libro, Esperanta kurso (senlima kaj senpaga), insignoj, kuko, ŝtrumpetoj. Pri "Kiu ricevis kiun?", komprenble vi rajtas demandi persone al partoprenintoj.

La tempo por retrospektivo 2000 kaj plano 2001 kun kandellumo estis eĉ pieca nekutime. Skribinte ĉirkaŭ 3 bonspertojn, 3 malbonspertojn jar2000, kaj 3 revojn jar2001, ni prezentis laŭvice, esperante ke ĉiu realigu siajn revojn kaj prezentu sekvanta ĵarfine kiel bonsperton. □

## 2001년 주요행사

Januaro 13[토] 새해 인사 모임

Februaro 2[금]~4[일] 전국 합숙

Aprilo 28[토]~30[월] 국제 에스페란토 연수회

Julio 21[토]~28[토] 에스페란토 세계대회(UK)

Julio 29[일]~Aŭgusto 5[일] 국제 청년대회(IJK)

Aŭgusto 10[금]~12[일] 한중일 청년 세미나리오(KS)

## 감사합니다

<후원, 기부금>

이형진 10월 5만원, 11월 5만원, 12월 5만원

일본 KAEM 위원일동: 21만원

## Amikoj de Zamenhof

□ 이종영 □ 최홍두 □ 김영명 □ 박화중

□ 최영달 □ 조성호 □ 김우선 □ 양옥남

□ 정원조 □ 박강문 □ 마영태

□ rondo Amanta (□ 하나는 오십만원 입니다.)

## 회원동정

□ 청년회 회장을 역임했던 장기수회원 새로운 삶을 찾아 일본에 갔음. 1년간 머무를 예정.

□ 군부대강연 - 문화원에서 에스페란토를 공부한 군중참모님의 초청으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한 에스페란토에 관한 이종기 선생님의 강연이 있었음. 100여분의 목사님들이 큰 관심과 호기심으로 참여.

## 2월호 안내

다음호 기관지의 주제는 **novjaro, familio, tradicio**입니다. 물론 이외 다른 글들도 언제나 환영입니다. 2월 1일 까지 보내주시는 글들은 2월호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

## 기관지 홈페이지 개편

본 에스페란토협회 기관지 <<에스페란토>>는 2001년부터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도록 전반적인 홈페이지 개편 작업을 단행하였습니다. 많이 방문하셔서 축하해 주세요. <http://www.mobigen.com/~lanternoazia/> 협회 홈페이지 <http://www.esperanto.or.kr> 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기관지에 실고 싶은 기사는 [lanternoazia@hanmir.com](mailto:lanternoazia@hanmir.com) 로 보내시면 됩니다. □



**1.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 안내**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는 에스페란토를 통한 국제 민간 교류를 증진시키고, 에스페란토를 보급하며, 나아가 한국을 전세계에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20년 김억 등에 의해 설립된 조선 에스페란토 협회의 전통을 계승하며, 1986년 12월 사단법인화가 되었고, 1976년 세계 에스페란토 협회의 한국 지부가 되었다. 주요 활동으로 기관지 "에스페란토"발간, 강습회 개최, 기타 국내외 각종 행사 개최와 참여 등이 있다.

**회비 납입처:** (사단법인 한국에스페란토협회)

국민은행 031-01-0365-220, 신한은행 623-05-000235, 은행지로 7622180

**2. 입회 방법**

에스페란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입회할 수 있다. 연회비를 은행 계좌로 송금하고, 입회 신청서를 협회 사무국으로 보내면 회원으로 등록되고, 협회 기관지를 받게 되며 각종 행사에 할인 혜택을 받는다.

**회비:**

일반회원 45,000원 단체회원 45,000원  
학생회원 25,000원 가족회원 25,000원  
평생회원 675,000원 후원회비 성의껏

**한국 에스페란토 협회 전국 지부 및 주요 단체**

**광주.전남지부**(전화: 062-265-5927, 062-525-0520)

지부장: 김인홍, 부지부장: 조권현, 총무: 강보연  
주소: 500-827 광주시 북구 신안동 9-6번지 킷마루  
정기모임: 매주 목요일 18시 카톨릭센터 지하다방

**대구.경북지부**(전화: 053-475-1887)

지부장: 김시현 부지부장: 정현조, 김원식 총무: 박찬복  
주소: 705-021 대구시남구봉 1동 588-43 내외빌딩4층  
정기 모임: 매주 화요일 19시 지부 사무실

**대전.충남지부**(전화: 042-634-8532)

지부장: 박천식, 부지부장: 정명관, 총무: 박남미  
주소: 300-808 대전시 동구 대 2동 16 인정빌라 A-203  
정기 모임: 매주 목요일 19시 지부 사무실

**부산.경남지부**(전화: 051-863-0003~6)

지부장: 이종현, 총무: 최향숙  
주소: 614-856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1동 399-20 지산  
간호학원  
정기 모임: 매월 둘째주 토요일 18시 30분

**인천지부**(전화: 032-465-3143)

지부장: 홍성조, 부지부장: 원동국, 총무: 전경숙  
주소: 405-865 인천시 남동구 만수1동 977-25  
문일여고내 홍성조

**전북지부**(전화: 063-243-2866)

지부장: 김양일, 부지부장: 온동원, 총무: 나영성  
주소: 561-231 전주 덕진구 인후1동 부익아파트306호  
정기모임: 매주 목요일 19시 원불교 전주교당

**충북지부**(전화: 043-223-5713, 전승: 223-5745)

지부장: 손선기, 총무: 송호정  
주소: 360-041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 1가 75-13층  
정기 모임: 매주 월요일 19시 지부장 사무실

**수원지회**(전화: 031-217-9962)

부장: 김영호, 부회장: 박영찬, 총무: 이영재  
주소: 442-717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탄4동  
성일아파트 201-1502(이길성)  
정기 모임: 매주 목요일 오후 8시

**천안지회**(전화: 041-550-1640, 전승: 041-550-1604)

회장: 박종영, 총무: 김영명, 사무국장: 오연  
주소: 330-110 충남 천안 쌍용2동 용암마을APT  
106-1161  
정기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경주포항 지회** (전화: 054-274-2403, 전승: 김용)

회장: 이여환, 총무: 최윤희  
주소: 791-841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2동 66-9  
**ESPERO**내과  
정기모임: 매월 3주 목요일 오후 7시

**양평지회** (전화: 031-771-0664)

회장: 옹경자, 부회장: 황순희, 총무: 김은미  
주소: 476-800 경기 양평군 양평읍 양근 2리 269-23  
정기모임: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한국에스페란토청년회**

회장: 김유영, 총무: 권혜영  
주소: 121-703 서울 마포구 마포동 350,  
강변한신코아 빌딩 1601호  
전화: 02-717-6974~5 전승: 717-6975

전 면 광 고

**[www.esperanto.or.kr](http://www.esperanto.or.kr)**